

# 2002 FIFA 한·일 월드컵을 통한 사회·문화적 성과 및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장원재 \*

- I. 축구와 인류
- II. 월드컵의 문화적 의미
- III. 2002년 월드컵의 사회·문화적 성과
- IV. 월드컵 이후 문화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I. 축구와 인류

### I-1. 축구: 세계 유일의 범인류적 스포츠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국가 간의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왜냐하면, 축구는 그런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sup>1)</sup>

지구상의 어떤 나라들, 예컨대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럭비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다. 피지에서는 7인제 럭비가 15인제, 혹은 11인제 럭비를 대신하여 최고 인기 스포츠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지 국가대표팀이

---

\*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1) 원로 축구학자 빌 산클리, 1981년 BBC와의 송년 인터뷰

7인제 럭비에서 10여 년 째 부동의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80년대 이후 뉴질랜드와 럭비 세계 정상 자리를 놓고 처절한 혈투를 거듭한 호주에서는 럭비보다도 호주식 럭비에 보다 많은 관중이 열광한다. 인종차별제도 철폐 직후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를 기념하여 96년 럭비 월드컵을 유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홈그라운드에서 기적 같은 우승을 일궈내며 전 세계인들의 축복을 받았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럭비보다 크리켓 쪽이 더 인기가 높다.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50 여 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크리켓은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국민 스포츠이기도 하다. 농구와 야구, 배구 역시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군림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스포츠의 한계를 아직은 극복하지 못했다. 현대 사회에서 범지구적 스포츠(Global Sports)로 불릴 수 있는 종목은 축구와 육상이 유이다. 그러나 육상은 산업화의 진행정도, 선수나 코치 등 직접 종사자의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축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더구나 육상은 필드와 트랙이라는 양대 산맥으로 갈라져 있으며, 두 영역이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수많은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종목의 수는 많지 않지만, 50km 경보나 마라톤 같은 이른바 ‘도로 경기’의 비중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축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지만, 육상의 일부 종목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더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예컨대, 이란이나 이라크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개최하거나 혹은 선수로 참가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마라톤은 도시국가 연합군이 펼친 고대 그리스 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 대 페르시아 전쟁의 승전으로부터 발원한 경기이다. 도시국가 연합군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자, 한 병사가 침식을 잊은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달려가 ‘우리가 이겼다’라는 한 마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지. 마라톤이라는 경기 명 자체가 당시의 전장이었던 마라톤 평원을 아우르고 있거니와, 당시 패전국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라톤은 아직까지도 ‘단순한 하나의 스포츠’가 아닐 터이다.

## I-2. 축구의 평등성 - 모든 체형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축구의 평등성이 축구가 범지구적인 관심을 모으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한다. 일류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축구만큼 생물학적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 스포츠가 없다는 이야기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스포츠는 '유리한 체형' 혹은 '전형적 체형'이라는 모델이 있다. 예컨대, 농구나 배구에서는 장신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상당한 특권을 누린다. 같은 육상 선수라도, 투포환이나 투해머 선수의 체형과 근육구조는 5,000m나 10,000m 전문의 장거리 선수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말하자면, 각 종목별로 어느 정도 특화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축구선수로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체형'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전술적 운영 방식에 따라, 기후나 기타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장신 선수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며 근육질의 선수가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후리후리한 선수가 최상의 플레이를 펼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수로는 순간 스피드가 뛰어나고 몸싸움에 강한 스프린터 형이, 미드필더로는 주행거리에 비례해 체력소모가 적은 마라토너 형이 적격이라고 하지만,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축구황제 펠레는 스프린터 형이라기보다는 마라토너 형에 가까운 체형이며,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인 '천재' 마라도나의 몸은 전형적인 스프린터 체형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축구는 모든 체형의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다.

## I-3. 축구 경제학: 축구 산업의 규모

그렇다면, 축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일한 글로벌 스포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밀한 근거가 있는가. 물론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수 숫자만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 다른 모든 스포츠의 직업 선수 숫자를 다 합쳐도 축구 한 종목의 프로 선수의 숫자를 능가하지 못한다. 구단 관계자, 언론 출판 및 방송 종사자 등을 포함한 산업 규모를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하자면, 축구 산업 종사자의 사분의 일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스포츠는 적어도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 내에서 오직 운동에 전념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한 종목은 축구와 골프, 테니스, 카 레이스, 권투 정도뿐이다. 위 종목 외에 정기적으로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미는 경기는 육상정도다. 지역에 따라. 예컨대 영국의 럭비나 크리켓, 스웨덴의 탁구, 독일의 핸드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배구 등이 있기는 하지만, 축구를 제외한 다른 종목의 중계 횟수를 다 합쳐봐야 전체 스포츠 시간의 15%를 넘지 못한다. 1996년으로 창간 100주년을 맞이한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츠』지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합 스포츠 잡지의 하나이다. 약 50쪽에 달하는 본문 기사 중 축구 기사가 48쪽, 나머지 두 번이 '종합' 스포츠 란이다. 이 같은 현상은 거의 전 유럽을 통틀어 공통적이다. 이탈리아인 중에서 이탈리아남자 배구가 세계 챔피언임을 아는 사람은 만나려면 같은 질문을 적어도 백 번은 던져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한국 남자배구가 78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진입했을 당시, 실업 팀의 숫자는 불과 넷. 그나마 금성과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한 팀은 전국체전용인 종합화학(충북대표) 이요 나머지 하나는 군(軍) 팀인 육군 통신교 팀이었다, 70년대 초반 전국체전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 탓에 종목 자체가 금지되었던 한국여자 하키는 대표 팀 재결성 이후 3년이 안 되어 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을 정복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세계 4강의 문턱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다. 4회 연속 올림픽 메달권 입성, 2회 연속 금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 마저 정복한 전략 종목 여자 핸드볼의 국내 경기 평균 관중 수는 세 자리 선에서 좀처럼 상향조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무관심 속에서도 얼마든지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 스포츠가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도 국제 무대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저의 모든 종목의 프로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프로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는 보수나 소득의 과다가 아니다. 운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1차적인 가늠자다. 운동선수들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특기자라는 이름으로 중고교에 진학하고 대학을 거쳐 실업에 진출하는 현행제도는, 운동실력을 담보로 입학과 입사라는 특권을 획득하는 한,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강변을 해도 엄밀한 프로의 논리 위에서 움직이는 세계이다. 일반 학생이 운동을



좋아한다는 순수한 이유에서, 직장인이 체력 단련의 일환으로 혹은 좀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반대급부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마추어다. 한국의 운동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와 격리되어, 운동에 전념해야 하도록 교육받는다. 소질 있는 소수의 장기간에 걸친 직업적 경기력 연마는, 저변은 넓지 않으나 경기 수준은 반비례로 높아지는 효과를 낳는다. 전문인들간의 좁은 세계에서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훨씬 더 냉혹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60여 팀만을 보유한 한국 고교야구가 2 만 팀이 넘는 일본 고교야구와 접전을 벌일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축구나 기타 메이저 종목을 제외한 유럽의 스포츠계를 움직이는 동력원은 취미와 열정으로 무장하고 자발적으로 경기력 연마에 힘쓰는 애호가 집단이 주축을 이룬다. 농구와 배구 같은 한국의 인기종목을 포함한 유럽의 군소종목들은, 다소의 전문성을 가미한 동호회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축구가 전세계 시민으로부터 그토록 고른 지위를 획득한 까닭은 무엇인가. 도대체 축구의 매력이란 어떤 것인가. 축구의 규칙은, 자잘한 시행 세칙을 모두 포함해도 18조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별다른 장비나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너른 들판에서 스물 두 명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판단에 의해 경기장의 구석구석을 뛰어다닐 수 있다는 사실과, 미군의 훈련 프로그램 작성자가 '축구는 전쟁과 가장 흡사한 스포츠'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결부시켜 '전쟁과 닮았다는 점 때문에 축구가 인기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구라는 사회현상의 극히 일부분만을 들여다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01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선수에게 자기 팀의 경기복을 입히려면 이적료로만 나가야 하는 돈이 물경 500억원을 상회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단 한 명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 십 채의 병원이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써야한다는 뜻이다. 바보 같은 것이라고?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만, 축구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다소간 지나친 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시인할 수도 있지만, 거래금액이라는 것은 철저히 수요공급의 원리를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그만한 금액의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한 금액을 지불하

고도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 집단 중의 하나가 유럽의 프로 구단들이다. 유럽 주요 국가의 명문 구단은 이미 단순한 스포츠 관련 회사가 아니다. AC 밀란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같은 명문 구단을 매입하려면, 30조 정도의 재원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축구 관련 방송이나 기타 용품 제작 회사같은 주변 산업까지를 모두 아우른다면, 축구는 이미 천문학적 금액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가운데 엄청난 수의 시민들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하나의 거대한 산업에 다름 아니다.

#### I-4. 축구종교론: 인류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도구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축구를 논하는 사람도 축구의 일면밖에는 보지 못한 사람이다. 적어도, 인간의 속성을 꿰뚫지 못한 사람이다.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다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일에 헌신하거나 미친 듯이 열광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축구에 쏟아지는 그 숭한 열정과 헌신과 환호와 비탄이 잇닿아 있는 곳은 어디란 말인가. 모의 전쟁이나 거대 산업을 총괄하며 통섭하는 축구의 영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걸쳐져 있는가. 서구의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축구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며, 나아가 유사 종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인류에게 있어 종교는 문화와 삶과 역사의 거대한 부분이며 동력원 구실을 수행하여 왔다. 학자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종교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의 기능은 다음 두 가지다. 도덕적 정화와 일상의 평범함을 벗어난 희열. 이 희열은 대개 '신과의 만남(接神)'이라는 순화된 용어로 불리는 것이 상례이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고등종교들은 이른바 문명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믿는 이들에게 도덕적 정화의 계기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는데 교단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축제나 카니발 등에 그 흔적을 다소간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신을 만나는 원형질의 시간'은 근대 산업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종교로부터 떨어져 나와 어두운 심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과학과 합리주의의 패러다임이 세계의 주축을 이룬 가운데, 말이나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세계는 원시적이거나 미개한 것

으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규격과 규칙과 질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축구라는 유사 종교를 통해 인류 구원(혹은 해탈, 혹은 득도)과 문명화합의 가능성을 읽는다. 축구는 기존 종교를 시샘하거나 적대하지 않는다. 이슬람교나 기독교의 신자, 불자나 유대교도 그리고 샴머니즘 신봉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역으로, 모든 제종교의 신자들이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정해진 규칙을 기꺼이 준수하며 함께 즐기는 행위가 축구 외에 달리 무엇이 있던가. 그러므로 축구는, 기존 종교와 문화적 역사적 층위를 달리하는 또 다른 종교적 제도이다. 축구가 문명 간 충돌을 방지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축구라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다신론적(多神論的) 신관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나는 여기서, 다신론적 세계관이 일신론적 세계관에 비해 우월한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당대의 구성원들 전체에게 신봉된 종교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이 선교와 포교를 위해 때로는 강제적 물리력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고 그 와중에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인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자기가 신봉하는 것과는 다른 종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상생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다신론적 신관은,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보아 일종의 '열린 사고체계'이다. 전세계 축구팬들은 대개 하나 이상의 신적인 존재들을 숭배하는 다신론자들이다. 숭배의 대상은 특정한 선수일 수도 있고, 특정한 구단일 수도 있으며, 특정한 나라의 국가대표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축구팬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내 응원 구단이 내가 숭배하는 선수가 속한 구단과 칼을 맞댈 수도 있고, 내가 적대시하는 구단에 내가 열광하는 나라의 대표 선수가 다수 포진해 있을 수도 있다. 그 모든 숭배의 대상들은, 내가 그들의 상대방을 편든다는 이유



로 나를 공격하거나 숭배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지도 않는다. 자기가 생활하는 도시나 나라를 대표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이 보다 재미있고 역동적인 체험일 수는 있겠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활동하는 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는다. 물론, 축구팬들도 상대팀에 대하여 공개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증오의 뜻을 표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증오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 바탕에서 발산되는 적대의 감정이다. 축구팬들은 상대팀의 존재 자체를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고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하고 정확한 분석에 가까울 것이다. '모든 인종을 포괄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었던 브라질이 지난 40년 간 세계 축구계를 장악하였으며, 프랑스가 21세기 최고의 팀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장하며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선수들을 끌어안은 '문화적 용광로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은 또 어떤가. 그러므로 축구의 성행은, 문명 간 국가 간 인종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범인류적 안전판이라고 보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II. 월드컵의 문화적 의미

### II-1. 월드컵: 축구문화의 정점, 인류를 위한 한바탕 대동극

이러한 축구문화의 정점에 월드컵 대회가 있다. 월드컵 대회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대의 일류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한바탕 격정적이고 소란스러우며 한편으로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거대한 제사이다. 생각해 보라. 모든 인류가 동일한 규칙 하에 동일한 목적을 향해 어울리는 제도가 축구 이외에 달리 무엇이 또 있는가를. 그러므로 4년에 한 번씩만 돌아오는 월드컵 대회를 '인류 최대의 제전이요 잔치이며 한바탕 대동극' 이라고 불러도 전혀 지나친 데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월드컵을 국력의 각축장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구기 경기는, 단체 경기라는 특성상 팀을 유지하고 이를 지원, 유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 한 사람의 천재가 기적처럼 출현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고 세계 정상으로 치올라 가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구기 종목에서 성적을 내는 일은 그 나라의 스포츠 문화, 나아가 스포츠라는 프리즘을 통해 드러나는 그 나라의 종합적 능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왜 축구에서의 성취가 유별나다는 말인가. 올림픽에도 축구를 포함하여 숱한 구기 종목이 있지 않은가. 올림픽에도 축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림픽 축구는 23세 이하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제한 경쟁 경기이다.

## II-2. 월드컵과 올림픽

잠시 말머리를 올림픽 쪽으로 돌려보자. 월드컵과 올림픽은 모두 4년마다 한 번씩만 열리는 범인류적 스포츠 제전이다. 그리고 두 이벤트는 개최연도를 엇갈리게 결정하여 서로를 배려하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축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기 단체는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올림픽 대회의 중간연도에 개최한다. 세계 선수권은 각 국가의 협회에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따로 지역 예선을 치르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참가를 원하는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대회 장소에 집결한다. 세계선수권 대회는, 한 종목만을 집중적으로 치르는 것이므로 올림픽에 비하면 경기 기간도 짧고 일반 팬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옅다. 올림픽은, 기준기록, 대륙별 쿼터 등으로 참가 선수의 숫자를 제한하지만, 여러 종목의 경기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예컨대, 각 경기 단체의 세계 선수권 대회가 소수의 매니아들을 위한 전문점이라면, 올림픽은 뷔페식당이요 여러 브랜드가 입주한 일종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는 자체가 경기 단체의 권위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각 경기 단체는 올림픽 타이틀과 세계선수권을 동일 향렬로 인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각 경기 단체의 올림픽에 대한 인식은 그 다양한 경기 방법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축구의 경우, 단언컨대 올림픽 금메달이 세계 축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월드컵 8강의 저 밑이다. 북한이 이탈리아를 1 : 0으로 물리치고 8강에 올랐던 저 66년 월드컵의 신화는,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럽 대륙에서 되풀이되어 언급되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그러나 일본 축구최대의 전리품 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동메달은, 언급은 고사하고 그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전문가마저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그렇다고 올림픽 축구 금메달이 무가치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IOC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자를 거느린 축구를 차마 제외할 수 없기에, 프로가 출전하지 않는 2류 타이틀의 불명예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해왔던 것이다. 올림픽축구의 금메달은 56년 소련의 등극 이래 80년까지 동구권의 독무대였다. 세계축구협회가 올림픽에 대해 이토록 고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월드컵만으로도 얼마든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홀대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월드컵의 권위를 보호하는 방편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올림픽에도 프로선수의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형성하자, 세계축구연맹은 올림픽을 23세 이하의 경연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수들 쳤다. 이미 청소년대회(20세 이하), 유소년대회(17세 이하)를 주관하던 세계축구연맹은 월드컵 산하의 또 다른 보조 타이틀 하나를 남의 손을 빌려 창설한 것이다. 그 첫 대회가 88년의 서울대회, 같은 규정 하에 치러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나고 월드컵 본선 경기에 비해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양 단체는 협상을 통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선수 3명 출장허용'이라는 합의문에 서명한다. IOC는 상업화되어버린 올림픽에서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기 어려웠고, 세계축구연맹 역시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펼치는 장외 종목들에 대해 IOC의 수뇌부들이 보이는 고자세와 축구에 대해 그들이 보여주는 협조적인 태도를 대비해 보라.

초창기의 몇 대회 이후 자진해서 올림픽 무대를 떠났던 테니스는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식 종목으로 재진입했다. 전영, 전미, 전불, 전호주 오픈 등 4대 타이틀 체제가 확고했던데다 선수들이 세계를 돌며 경기를 치르는 '투어 프로'의 개념이 일찍부터 정착되어 있었던 관계로, 표

면적으로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하는 올림픽에서 테니스의 설 자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세계 랭킹 300위권 선수들까지 모두 전업선수인 마당에, 아무리 올림픽이라 해도 아마추어 타이틀은 너무도 권위가 없을 터였다. 게다가 테니스는 나름대로 대규모의 열성적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올림픽의 권위에 의탁할 까닭이 없었고, 국가 대항전인 데이비스컵(남자)과 페더레이션컵(여자) 대회도 매년 짜임새 있게 운영 중이었다. 테니스의 재진입은, 테니스의 인기를 권위 신장에 이용하려는 IOC의 입장과, 미래를 위해 제3세계에 시급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세계 랭킹에 의거하여 출전선수를 선정하는 기존 대회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약소국 선수들의 출전을 보장하는 메이저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테니스'연맹 수뇌부의 이번첼리즘이 의기투합한 결과이다.

육상은 오직 기록을 향해 개인 개인의 고독한 사투를 펼치는 비경합경기다. 그러나 중계 기술의 발달과 수요의 증가로 막대한 물량공세가 가능해지면서, 예컨대 수십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돌림으로써 경기 장면의 중계 가능한 모든 세부가 사실보다 더 생생하게 일반인의 눈과 귀에 전달됨으로써 육상 경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은, 고도로 단련된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한없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달은 것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선수들의 표정. 바톤 터치할 때의 손끝. 너비 뛰기의 고공비행. 1차시기의 도전기록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따위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육상경기에도 구기 경기 못지않은 작전의 묘와 복잡한 이론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 육상연맹 관계자들이 발견한 신천지는, 일반 팬들이 세계적 스포린터들이 펼치는 100미터 경주나 마라톤 레이스를 기록경기가 아닌 영웅들의 대결구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91년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 이후 93년의 독일, 95년의 스웨덴대회에서 이 같은 추세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더불어 전세계 방송사들이 거액의 중계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들자, 세계육상연맹은 독립의 시기가 머지않았음을 직감적으로 간파했다. 그리고 구소련의 붕괴 이후 절대강자가 사라진 별판에서, 세계선수권자를 보유한 국가군이 아프리카의 남단으로부터 동서유럽을 아우르고 아시아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세



계선수권대회만으로도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IOC를 향해 올림픽육상 경기를, 축구의 예를 따라 26세 이하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전환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화두 하나를 슬쩍 던져놓았다. 육상이 빠진 올림픽은 이미 올림픽이 아닐 것이다. 독립채산의 가치를 지켜든 세계육상연맹의 도전을 IOC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 II-3. 월드컵: 목숨을 걸고 댈다, 처절한 프로페셔널들의 격전장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축구만큼 범인류적으로 행해지는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경쟁의 범위와 강도가 처음부터 같지 않은 것이다. 월드컵의 권위를 담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월드컵이 프로 선수들의 각축장이라는 사실이다. 아이스하키를 제외하면, 처음부터 프로 선수의 참가를 허용했던 종목은 찾아보기 힘들다. 월드컵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취미의 일부로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전존재를 건 채 기량을 연마하여 마침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일류 검객들이, 변명과 회피가 통하지 않는 사생결단의 장에서 칼을 맞대고 숨가쁘게 부딪히던 치열한 격투의 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을 거둔다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부 축구 선진국이 축구를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 선진국의 풍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국민들은, 축구를 통하여 자신들이 잠재력이 뛰어난 국가의 국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10년 간 비약적인 성취를 보여준 아프리카의 시민들은, 축구를 통해 인류 구성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유지한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다수의 아프리카 선수들은 유럽 리그 출신들이다. 비록 유럽의 시스템에 의탁하기는 했을망정, 개인적인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월드컵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대회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성취를 확대 해석하는 일은,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월드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월드컵 우승은 전

세계 축구인 누구나가 인정하는 지존의 타이틀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 리그의 우승이 대단한 일이지는 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우승보다는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팬이 있을 수 있다. 이탈리아 세리아 A가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라고는 하지만, 브라질 리그 챔피언 결정전보다는 박진감이 덜하다는 평론가도 있다. 남미 선수권 대회인 코파 아메리카나보다는 유럽선수권인 유러피안 컵이 훨씬 더 치열한 각축장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월드컵의 권위와 명성, 가치와 공신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월드컵에 출전한 대다수의 선수들을 인터뷰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월드컵 그라운드를 밟아보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평생의 꿈이었다'고 첫마디를 꺼낸다. 어린 시절의 이상들이 경기하던 바로 그 무대에서 뛰어본다는 것. 말하자면, 그들은, 신들의 세계에 발을 디딘 인간의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 어떤 일을 해냈으며, 공동개최국의 한 축으로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 III. 2002년 월드컵의 사회·문화적 성과

#### III-1.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의 의미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는, 35년간의 식민지배와 피지배를 정점으로 하여 술한 악연으로 뒤얽혀 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양국의 민족 감정이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온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어느 일방이 국토를 파내어 지구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영원히 이웃하며 살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벽두에서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는 일은, 두 나라의 앞날과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룩한 작업에 다름 아닐 터이다. 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지난 10여 년 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고는 해도, 관광과 단기 체류를 넘어서는 진지하고 실질적인 교류의 질과 양은

놀라울 정도로 섬소하고 빈약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월드컵이 갖는 의미는 실로 막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엘리트들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쳐 큰일을 함께 도모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이다. 이만한 규모로 이만한 사람들이 이렇듯 양국을 오가며 모든 인류를 위한 제전을 더불어 함께 준비했다는 것. 이번 월드컵 기간 중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두 나라를 숨가쁘게 오갔다는 사실. 양국의 국민들이 피차간에 상대 팀을 응원하고, 음식축제, 공연교류를 포함하여 대규모의 민간교류가 자발적 능동적 차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sup>2)</sup> 이것을 기화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 나아가 양국의 국민들이 미래의 역사를 향하여 한 걸음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월드컵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 III-2. 공동체 의식의 제고: 축제의 회복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번 월드컵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감 및 일체감 고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노동은 본질적으로 육체와 정신의 긴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육체와 정신의 긴장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인간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임계치를 넘어서며, 나아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른다. 그러므로, 육체와 정신의 긴장을 정기적, 주기적으로 풀어주는 행위의 필요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다.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개인적 차원의 해소와 집단적 차원의 해소가 있다. 집단적 차원의 긴장 해소는 개개인의 긴장을 풀어버린다는 일차적 목적 외에, 해소의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심정적 정서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고양하여 사회의 운영과 유지에 창조적으

2) 일본 고라쿠엔 국립경기장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통하여 한국과 독일의 준결승전을 생중계하였다. 일본 역사상, 자국 팀이 출전하지 않는 경기를 국립경기장에서 생방송한 것은 이번 경우가 처음이다.



로 기여한다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한다.<sup>3)</sup>

3) 또 다른 차원에서, 축구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동질감을 높이고 일체감을 회복하는데, 말하자면 사회의 건강성을 고양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1998년 월드컵 당시, 축구가 프랑스 사회의 사회통합에 공헌한 사실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용광로를 아는가. 품에 넣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녹여버리는, 저절하리 만치 뜨거운 쇠그릇. 90년대 중반, 프랑스는 안팎으로 금이 간 붕괴 직전의 아파트였다. 좌우 이념의 대립 외에, 전통적인 도농간의 갈등 그리고, 북아프리카 출신 아랍계 프랑스 인들과 남태평양에서 건너온 이민자들, 프랑코 아프리카인이라 불리는 블랙 아프리카계 시민들. 인종도 종교도 민족도 문화도 모두 다른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묶어낼 수 있단 말인가. 어디까지가 프랑스이고, 누구부터가 프랑스 인인가. 승선자들을 강제로 떨구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토록 복잡하게 얽혀있는 갖가지 갈등들을 단 번에 풀어낼 묘책은 없는 것이 아니더냐. 아니다, 프랑스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인종과 종교와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지구인이 열광하는 유일하고 거대한 사회 제도인, 축구라는 이름의 용광로가 있다! 그 인류 문화의 정점, 월드컵이라는 장엄한 축제의 바다, 그 격랑을 헤쳐 가는 프랑스 호를 조타한 건 알제리 계의 피가 흐르는 지네딕 지단이었다. 남아메리카 한 편의 프랑스령 가이아나 출신 티에리 앙리, 소년 시절 가톨릭 신부가 되기를 희망하던 이 청년이 초반 두 경기 연속 득점으로 프랑스 군단을 진군시키자, 프랑스의 이름으로 울려 퍼지는 거대한 환호의 물결이 전 국토를 뒤덮었다. 16강전, 천금같은 연장 골든 골을 작렬시킨 건 하얀 피부를 가진 프랑스인 블랑. 이에 화답하듯, A매치 사상 생애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모두 월드컵 준결승에서 터뜨린, 기적과 승리의 사나이 투람은 아프리카 이민자의 직계 자손이었다. 준준결승을 앞두고 었던가,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독립주의자인 카렘비가 경기 전 프랑스 국가를 단 한 번도 따라 부르지 않았다는 극우파의 비난이 이어지자 “어쨌거나 카렘비는 프랑스의 셔츠를 입고 프랑스의 승리를 위하여 신명을 바친다.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닌가. 우리 모두는 그를 사랑한다”며 방탄 막을 둘러친 건 ‘전형적인 프랑스 청년’인 골키퍼 마르테즈였다. 결승전이 끝난 후 지단은 아르메니아 출신 조케예프에게 다가 “이봐 이게 꿈은 아니겠지?”라고 물었었다지. 모두가 포기해버린 수 백 년 역사의 상처와 허물을,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봉합했다는 것. 그 순간, 지단도 조케예프도 에밀 자케 감독도, 그리고 모든 프랑스 사람들도, 목놓아 광야에서처럼 부르짖었으리라, 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우, 사회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풀어버릴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맥락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해원 기능을 수행하던 마을 축제나 굿 등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린 까닭으로는 크게 보아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제 강점기 내내 일어났던 자기문화에 대한 열패감. 둘째,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비과학적, 비합리적 문화행위에 대한 멸시와 탄압.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근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영육에 가해지는 긴장을 해소하며 살아왔는가. 개인적 차원의 해원을 논의로 한다면, 집단적 차원의 해원을 대신한 유사축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정치 집회와 종교 집회. 한국 사회에서 정치 집회와 종교 집회가 열광을 지나 다소 광신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던 데는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집회와 종교 집회는 모두 배타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정 정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 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의 절대다수를 포용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고양하는데도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가 등장하였다. 2002년 6월, 700만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광한 이면에는, 공동체 축제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가 그만큼 거대했었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축구인가? 사회학적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축구에는 '음험한 배후'가 없다. 특정한 목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엄청난 수의 인파가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

는 어디 있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오직 '우리'가 있을 뿐이다, 아아 나의 조국 프랑스 만만세!"

장원재, "재미있는 월드컵 12", 조선일보, 2002. 5.

### III-3. 붉은 악마 신드롬

한국 근현대사는 우여곡절로 점철된 불행한 역사이다. 그 와중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정 정치 이념의 상징색이 붉은 색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6.25 동란 발발 50년이 지나도록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일종의 콤플렉스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콤플렉스란, 특정 색채를 단순한 색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정 정치 이념의 연관선상에서 과악하고 인식하는 조건반사적인 성향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일종의 개념적 왜곡이다. 문제는, 이러한 왜곡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왜곡을 바로 잡으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복 색깔이 붉은 색이라는 점과 특정 정치 이념의 상징색이 역시 붉은 색이라는 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다. 이것은 우연이다. 예컨대, 한국팀의 주 경기복 색깔이 청색이거나 백색이었다면 2002년 6월의 붉은 악마 현상은 푸른 악마, 혹은 하얀 악마 현상으로 대치되었을 것이다. 약간의 논의를 거쳐 붉은 색을 주 경기복 색으로 확정된 것은 한국 사회의 행운이다.<sup>4)</sup> 거대한 축제의 열기 속에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가 전혀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완벽하게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사회적 역사적 비용을 지불하고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사안이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완벽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념 문제에 소모적 논쟁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것.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창조적으

---

4) 한국 대표팀의 경기복 색깔이 늘 일정했던 것은 아니다. 상의만을 기준으로 해도, 매번 월드컵마다 주 경기복 색깔과 보조 경기복 색깔은 매번 교체되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은 적색, 짙은 감색(이라 주 경기복 색/ 보조 경기복 색),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은 적색, 백색, 94년 미국 월드컵은 청색, 백색, 98년 월드컵은 적색, 청색이었으며 2002년 대회 때는 90년 대회 때와 같이 적색, 백색으로 결정되었다.



로 통섭하기 위한 생산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것. 축구는 경기장에서만 치러지는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다. 사회와 역사가 하지 못했던 일을 단기간에 성취해 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축구는 그 자체로 역사이며 문화이고 축제이며 종교이다.

## IV. 월드컵 이후 문화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IV-1. 내부적 과제: 리그 시스템의 정비와 국제표준화의 완성

이것은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탐스러운 꽃이다. 세계 언론은 한국의 16강 진출을 이렇게 평가한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칭찬이 아니다. 말도 안되는 곳에서 말도 안되는 성취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수사법이기에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매체가 일본을 주요 보도대상으로 삼고, 한국 관련 기사는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한다. 축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축구전문 잡지인 월간 <월드사커>의 경우,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일본리그는 매달 한 페이지 이상을 할애하여 보도하면서도, 한국리그는 두서너 줄의 동정기사로만 취급했다는 이야기다. 일본리그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그요 한국 리그는 기타 여러 나라의 리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식이었다. 월드컵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다. 기사의 비중이나 게재 빈도를 기준으로 하면, 유럽 언론 내에서의 한일간 격차는 50대 1 이상 벌어져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국팀의 선전으로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월드컵이 끝난 이후 개최국으로서의 이득을 상당부분 잃게 될지도 모른다. 2002년 월드컵은 한일 공동개최가 아니라, 일본 월드컵의 일부 경기를 한국 부분 개최한 정도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유럽 언론이 한국 축구를 홀대하는 까닭은 명백하다. 한국 축구리그가

유럽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유럽축구리그의 뼈대는 디비전 피라미드 시스템이다. 자체 구장을 가지고 매주 경기에 참가하는 구단들이 상위리그로부터 하위리그에 이르기까지 수 십 팀 단위로 편제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2부 리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3부 4부까지를 망라하는 하위리그까지 조직되어 있는 일본에 비한다면, 한국에서 연중리그에 참여하는 팀은 프로구단 10개 구단이 유일하다. 유럽식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 축구는 기본시설도 갖추지 못한, 소수에 의한 소수만을 위한 소수만의 리그인 셈이다. 실업축구와 대학축구를 망라하는 연중리그 체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 축구가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못하는 체제를 고수하는 한, 유럽언론의 한일 차별이 시정될 길은 없기 때문이다. 근거가 박약한 불평불만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유럽 언론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축구를 자동차 공장에, 한국 축구 선수를 자동차에 비유해 보자. 우리가 만든 자동차의 품질이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아무리 강조해 보아야 가내 수공업 규모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구매자를 찾기란 쉽지 않을 터이다.

이 대목에서 말머리를 돌려, 유럽식 프로 축구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자. 축구를, 관광 산업이나 영화 산업 못지않은 파괴력을 함장한 거대한 비즈니스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한국 축구를 국제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럽의 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축구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 축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잉글랜드의 경우, 96개의 프로팀이 있다. 이 말은, 자체 구장을 가지고 있으며, 축구 이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는 전업 선수들을 거느리고 매주 경기에 참가하는 구단들이 상위리그로부터 하위리그에 이르기까지 수 십 팀 단위로 편제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위 팀 들은 프리미어 리그, 디비전 1, 디비전 2, 디비전 3로 나뉘어 각각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연중 리그를 치르고, 성적에 따라 하위 상위 서너 팀들이 아래 리그로 혹은 윗 리그로 자리바꿈을

한다. 예를 들자면, 프리미어 리그 하위 세 팀은 무조건 디비전 1로 탈락한다. 프리미어 리그의 경우, 우승컵을 놓고 벌이는 상위 팀들 간의 피말리는 대권 레이스도 흥미진진하지만, 하위 팀들 간에 탈락을 면하기 위해 처절하게 맞부딪히는 생존 경쟁 또한 흥미 만점이다. 금년 시즌에는 잔류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마다 전망이 불투명한 위태위태한 레이스를 펼치다가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16위, 17위로 가까스로 살아남곤 했던 코벤트리 시티와 사우스 햄프턴의 별명은 '생존의 마법사'를 뜻하는 '서바이벌 아티스트.' 전례로 보자면, 우승 팀이 벌이는 축제보다는 살아남은 팀들의 선수와 관중이 그라운드에서 한데 엉켜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쪽이 훨씬 더 잔치 분위기를 풍기는 편이다. 그렇다면, 프리미어 리그 중위권 팀들간의 경쟁 포인트는 무엇인가. 각국의 상위 팀들에게 출전권을 부여하는 클럽간의 국제 경기, UEFA컵 출전권이다. 디비전 1의 우승, 준우승 팀은 자동적으로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 3위-6위, 4위-5위 팀은 홈 앤드 어웨이로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을 치르고, 승자 두 팀이 단판 승부로 프리미어 리그 막차 티켓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잉글랜드 축구계의 오랜 전통은 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웹블리 경기장에서 FA컵 결승전을 치르는 것. 오월 둘째 주 주말에 플레이오프 결승전들을 치르는 것도 역시 오랜 관례의 하나이다. 금요일에는 디비전 2로 올라가는 단판 승부를, 토요일에는 디비전 1로 진입하는 단판 승부를,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 해 시즌을 총 결산하는 마무리 경기로 프리미어 리그 진입을 위한 단판 승부가 펼쳐진다. 프로리그 밑으로는, 500여 팀이 참가하는 세미 프로리그가 조직되어 있다. 예닐곱 명의 전업 선수를 보유한, 프로 팀에 가까운 구단부터 일당제 선수들로만 구성된 영세한 구단에 이르기까지, 세미프로 팀들은 각각의 재정상태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세미프로 선수관, 축구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기에,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우편배달부, 채소 장수, 배관공 등 여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공을 차는 선수들을 말한다. 세미 프로리그 1부 리그는 스폰서 회사의 이름을 따서 복스홀 컨퍼런스라고 부르는데, 런던 내 한인촌인 뉴몰튼/ 킹스톤을 본거지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구상범 선수가 은퇴 이후 잠시 몸을 담기도 했었던 킹스토니안 구단이 바로 이 리그 소속이다. 복스홀 컨퍼런스와 디비전 3 팀간에도 승진과 추락이 있다. 그



리나, 이 경우는, 프로 팀간의 이동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북스홀 컨퍼런스 우승 팀은 축구협회로부터 구단의 재정상태, 경기장 시설기준 검사를 받은 뒤 합격 판정을 받으면 프로리그로 진입하고, 디비전 3 최하위 팀이 세미리그로 내려온다.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해 북스홀 컨퍼런스와 디비전 3간의 이동은 없다. 세미 프로리그는 하위로 내려갈수록 동일 지역 내의 팀들 간에 벌어지는 지역리그의 성격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성적에 따라 추락과 승진을 거듭하는 것은 물론이다.

실업축구와 대학축구를 망라하면, 그리고 각종 직장팀들을 모두 아우르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유럽 축구 못지않은 훌륭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히딩크와 태극전사들이 피워낸 사막 속의 꽃은 한번 피우고 말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산업자원이다. 이 꽃을 구매하겠다고 찾아올 수많은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꽃이 좀 더 활짝 피어나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꽃이 만개하려면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의 창설은 그래,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일이다.

#### IV-2. 외부적 과제: 문화상품의 제조와 세계화 전략

소위 말하는 “문화산업”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천만의 말씀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문화산업만큼 지속적인 파급력을 지니는 분야도 흔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문화산업은 가장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광고수단이다. 직접적으로 특정한 상품을 홍보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특정 문화 산업의 향수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은연중에 어떤 이미지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이 판매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다. 이미지 자체는 구체적 경제성을 지니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수의 파생상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경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막대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만큼 막대한 가치를 지닌 자산도 흔하지 않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노도의 물결처럼 번져 나가는 저 도도한 한류(韓流)의 흐름을 보라.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중가요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김없이 한국 가수나 드라마 주인공들의 행태를 모방한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이다. 그러나 다른 개체의 생애나 삶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한국인 스타들과 외국인 수용자들 사이에는 물리적인 공간적 편차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리감을 줄이고 정서적 일체감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타가 소비하는 물건과 똑같은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와 누군가의 존재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마음의 상징이다. 여기에 문화산업의 핵심 전략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 스타의 이미지에 덧대어 얼마나 많은 심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얼마만큼 창조적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를 고구해 보아야 한다. 스포츠만큼 파괴력이 막강한 문화상품은 다시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박찬호나 김병현의 경우를 보자. 그들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대표적인 메이저리거다. 이 두 사람의 활약에 비례하여 얼마나 많은 미국 문화적 요소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가를 따져본 적이 있는지. 그것만이 아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신문 방송의 기사며 중계는 본질적으로 미국 문화 전체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쓰여지고 또 전파를 탄다. 왜? 언론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박찬호나 김병현에 가탁한 영웅의 이미지다. 시청률 경쟁에 있어, 확실한 영웅을 쥐고 있는 것만큼 유리한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면, 메이저 리그 자체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해야만 한다. 그만큼 어려운 경쟁을 이겨내고, 그만큼 대단한 곳에서 훌륭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라마 구조처럼 기-승-전-결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메이저리그를 대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그다지 타할 일이 못된다. 집단이건 개인이건, 속성이나 본질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축구라는 매개체를 수단으로 삼아 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그 나라 선수들을 수입하여 팀의 주전으로 양성하면 된다. 예컨대, 태국 선수 한 명이 한국 프로 리그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자. 그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는 일주일에 한 번 씩 한국 프로 축구쪽으로 쏠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중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축구 바깥으로 번져 나가고, 마침내 한국 문화 전반에 걸친 관심 쪽으로 물꼬를 틀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 친밀도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유형 무형의 한국 관련 상품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번 월드컵에서의 빛나는 성취이다. 월드컵 16강 8강이라는 타이틀은 한국 축구리그에 거대한 권위를 부여할 것이다. 한국 야구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활약상을 시시콜콜히 보도하는 이번에는, 메이저리그의 권위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는다는 전제와 목계가 있다. 이러한 권위를 획득하는 일 자체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거둔 성적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발전의 단계를 단숨에 서너 계단이나 앞당겼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특정한 문화상품을 현지로 수출하고 그 수출품을 바탕으로 연계사업을 펼쳐 가는 것과는 달리, 축구 산업은 아시아인들의 관심을 한국 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증폭되고, 아시아 시민들과 한국 문화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확대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프로리그가 획득한 권위에 비하여 한국 축구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프로팀 숫자가 열 개에 불과해서는 복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가 없다. 30억 아시아 시민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아우르고 이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칠 기반이 조성되었는데도 이를 인지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월드컵에서의 빛나는 성취는, 적절한 산업 구조의 완성이라는 디딤돌이 놓이지 않는 한 일과성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 연중리그의 활성화, 하위리그의 창설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정서적인 희열과 만족감을 실질적인 수익구조로 전환시키자는 것. 이 핵심에 프로축구의 산업화라는 화두가 있고 축구를 통



하여 한류를 확대 증폭이라는 구체적 그림도 들어있다는 것.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다음 과제는 이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면, 수면 아래를 흘러가는 거대한 현금 덩어리를 건져 올리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이다. 세월이 지나면, 이 현금 덩어리에 접근하는데 만도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Socio-cultural Contribution of 2002 FIFA Korea-Japan World Cup and Development Plan for Sports Culture

Jang, Won-Jae

The main topic of this dissertation is Socio-cultural Contribution of 2002 FIFA Korea-Japan World Cup and Development Plan for Sports Culture. The main areas of discussion are the following. First, the reasons why the Korean society having been exited during the World Cup period. So-called street spectators, those who embark new-trend and new-type of football culture, increased up to 7,000, 000 for Korean teams semi-final against Germany, however, football was not the most favourite sports before 2002. For this reason, the second area of discussion is those elements of World Cup which particularly appealed to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process of organising street-spectator culture, Korean people changed the original shape of football supporting culture according to their socio-cultural needs. Therefore, the third area of discussion is how the Korean people used World Cup. Finally, the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and meaning of the World Cup will be examined.

The dissertation consists of four parts. Chapter I is an introduction. The points covered in the main section of the int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society and football will be provided. The football passion in Korea during the 2002 World Cup was closely related to the socio-cultural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In addition, the features of the concept of football in modern Korean society will be discussed, as i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o-cultural and socio-political movements during the contemporary period. The discussion in chapter II is based on Korean articles concerning 2002 World Cup which were published during the June 2002. In this chapter, a part of Korean articles concerning World Cup will be provided. This will be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most important articles.

In chapter III, the process of importation, adaptation and assimilation of World Cup into the Korean society will be traced. A further area of discussion will focus on which examples of World Cup were chosen and how they were altered and interpreted from a Korean perspective.

Chapter V is the conclusi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World Cup and football's impact on Korean society during the 2002 World Cup will be discussed.